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10.9~10.10)

1. WTO 양자간 협의 관련

□ [일본 정부 동향]¹⁾

- 일본 경제산업성은 10월 10일 홈페이지에 “11일 수출관리제도 운영 재검토와 관련하여 WTO 협정에 근거, 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할 예정” 이라고 공지
- 또한 “대량살상무기 등의 비확산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의 재검토는 WTO 협정과 정합적이며, 일본은 그 취지를 분명하게 주장할 것” 이라고 입장을 표명

□ [일본 언론 동향]

- 닛케이(日本經濟新聞)는 “한국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, 한일 간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서 협의의 기한 내에 해결되지 않고 패널 심리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” 고 전망²⁾
- o 또한 닛케이는 이르면 11월 중순에도 패널 심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
- 마이니치(毎日) 신문도 논의가 평행선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며, 시즈오카(静岡³⁾) 신문도 양자 협의 내에서 해결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

2. 아베 총리의 한국 비판 관련

1) 経済産業省(2019. 10. 10), 「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WTO協定に基づく二国間協議を実施します」, 홈페이지: <https://www.meti.go.jp/press/2019/10/20191010002/20191010002.html> (검색일: 2019. 10. 10).

2) 「WTO提訴巡り、あす日韓が協議、輸出管理、解決遠く。」 『日本經濟新聞』 (2019. 10. 10).

3) 「NEWSFLASH: 韓国WTO提訴受け2国間協議へ」 『毎日新聞』 (2019. 10. 10.) 및 「あす輸出規制で日韓協議 半導体材料、WTO提訴巡り」 『静岡新聞』 (2019. 10. 10).

□ [일본 정부 동향]⁴⁾

- 10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베총리는 악화되는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“한일 관계의 근간이 되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,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”고 한국 정부를 비판
- 한편 북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국을 “중요한 나라”라고 하면서도, “(한국이) 국제법에 근거, 국가와 국가간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관계로 돌아갈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”라고 발언

3.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관련

□ [일본 정부 동향]⁵⁾

- 아베 총리는 10월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, “일본의 독자적 정보수집, 미국과의 정보 협력으로 보다 만전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의 방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”라는 인식을 표명
- 한편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“한일, 한미일의 적절한 연대라는 관점에서 한국 정부로 하여금 현명한 대응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”고 발언

4) 「首相、韓国を批判 代表質問」『産経新聞』(2019. 10. 9).

5) 「安倍首相：「直接的な支障なし」 GSOMIA破棄に首相」『毎日新聞』(2019. 10. 10).